

코리아컵 춘추제로 간다…결승은 2027년 6월

대한축구협회, 예산 1387억 확정…예산 662억 줄고 수입은 성장
코리아컵, ACL 맞춰 개편…여자부, 15팀 참가 W코리아컵 신설

대한축구협회가 내년도 예산을 1387억원으로 확정했다. 춘추제에 맞춰 코리아컵 일정도 개편하면서, 2027년 6월 결승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가 23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제11차 이사회를 열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사업 계획의 심의·확정이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6년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총 13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2049억원 보다 약 662억원 감소한 수치다.

일반 예산은 1048억원이고, 339억원은 충남 천안에 건립 중인 코리아풋볼파크(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예산이다.

예산은 줄었지만 자체 수입은 1181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 항목은 ▲파트너사 후원금 ▲A매치 및 중계권 수익 ▲FIFA와 AFC 보조금 ▲교육 및 등록비 등으로 지난해 828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북중미 월드컵 등으로 인한 FIFA 보조금 및 후

원사 수익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 예산 가운데 각급 대표팀 경쟁력 강화에 가장 많은 320억원이 편성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 여자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참가, 각급 연령별 대표팀 운영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술 발전 및 지도자·심판 육성에 138억, 각종 국내 대회 운영에 103억, 생활축구 활성화 및 저변확대 사업에 약 83억 예산이 배분됐다.

이사회는 2026년 각급 리그 및 전국대회 일정도 논의하고, 코리아컵 춘추제 개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코리아컵은 7·8월에 1~4라운드 일정을 진행해 16강 팀을 확정한다. 이어 8강부터 결승은 2027년도 5~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ACL 일정과 국제 축구의 흐름에 맞추고, K리그 팀들이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정을 개편한 협회는 브랜드 리뉴얼과 상급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컵 대회 위상 제고에도 나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전북 박진섭이 헤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침이다.
여자부에도 변화가 있다.
WK리그 8팀 및 대학부 7팀 등 총 15개 팀이 참

가하는 W코리아컵이 신설된다.
대회는 토너먼트 4라운드로 진행되며 앞으로 성인, 대학, 동호인팀까지로 참가팀을 확대할 방침이

다. 대회 규정과 상금 등은 추후 확정해 발표한다.
협회는 아마추어 전국 8·8 챔피언십 도입도 추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호 체제 시동…K리그2 수원, 승격 향해 새 판 짠다

이규성·레오 등 선수 10명과 결별…본격 리빌딩

이정호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겨 1부 승격에 제도전하는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10명의 선수를 내보내고 대규모 선수단 정리를 마무리했다.

수원 구단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정훈(GK), 세라핌(FW), 이규성, 김상준(이상 MF), 손호준, 레오(이상 DF) 6명의 선수와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기재, 김민우, 황석호, 최영준 4명의 베테랑 수비수와 작별을 선택한 수원은 모두 10명의 선수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수원이 대대적으로 선수단 정리에 나선 것은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한 이정호 전 광주FC 감독의

구상에 맞춰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사전 조치 작업이다.

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부 승격을 위해 영입한 선수가 많았지만,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따른 선수단 개편의 일환”이라며 “새 감독이 오면 새로운 선수들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은 하나은행 K리그2 2025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78)에 이어 승점 72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1부 승격의 기대감을 떠안고 K리그1 11위 제주 유나이티드와 승강 플레이오프(PO)를 벌였지만, 1, 2차전 합계 0-3패(1차전 0-1패·2차전 0-2

패)으로 저 승격에 실패했다.

수원이 2년 연속 1부 승격에 고배를 든 뒤 박경훈 단장이 물러나고, 변성환 감독도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났다.

수원 구단은 차기 사령탑으로 광주FC의 돌풍을 이끈 이정호 감독 영입을 추진했고 마침내 협상에서 합의해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이정호 감독은 시즌을 마치고 영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축구를 보며 새 시즌 구상에 나선 상태라 귀국하는 대로 정식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구단 관계자는 “애초 이번 주중에 이정호 감독과 정식 계약할 예정이었지만 영국에 체류 중이라 일정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절대 1강’ HL 안양, 아이스하키 선수권 우승

연세대에 4-2 승…6연패 달성

한국 아이스하키의 ‘절대 1강’ HL 안양이 대학강호 연세대학교를 제압하고 전국종합선수권대회 6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HL 안양은 23일 서울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종합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연세대에 4-2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HL 안양은 이 대회 6연패를 달성하며 국내 최강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했다.

경기 초반은 대학생 선수들의 패기를 앞세운 연세대의 흐름이었다.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HL 안양을 강하게 압박하던 연세대는 2파리어드 시작 24초 만에 김시환이 날카로운 원타이머 슈트로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 3연속 통합 우승을 일궈낸 HL 안양의 관록은 위기

에서 빛났다.

전열을 재정비한 HL 안양은 2파리어드에만 4골을 폭발시키며 단숨에 경기 흐름을 뒤집었다.

반격의 서막은 한자와 자카라가 열었다. 2파리어드 1분 47초, 상대 골문 뒤쪽에서 강민환이 내준 패스를 한자와가 강력한 원타이머 슈트로 연결해 1-1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HL 안양은 4분 22초 다케야 리오트의 장거리 리스트 슈트 문전에 있던 김건우가 절묘하게 톱인으로 방향을 바꿔 2-1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8분 22초에는 상대 페널티로 얻은 파워플레이(수적 우세) 기회에서 강민환이 추가 골을 터트렸고, 17분 38초에는 김상욱의 슈팅이 골리 맞고 나온 것을 배상호가 밀어 넣어 스코어를 4-1로 벌렸다.

연세대는 2파리어드 종료 11초를 남기고 김다온이 만회 골을 넣어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HL 안양은 3파리어드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과 피지컬 플레이로 상대 공세를 차단하며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친 한자와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2경기에서 5어시스트를 기록한 김상욱은 포인트상을 받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박우상 코치에게는 지도자상이 돌아갔다.

/연합뉴스

‘팀 브라운’ vs ‘팀 코니’

프로농구 올스타전 명단 확정

올 시즌 프로농구 ‘별들의 축제’에서 뛸 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프로농구 KBL은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팀 구성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스타전 감독으로 선발된 창원 LG 조상현 감독과 안양 정관장 유도훈 감독이 각각 ‘팀 브라운’, ‘팀 코니’를 맡아 선수단을 구성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감독으로 선정된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팀 감독이 각 팀 코치진으로 합류한다. 2라운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4, 5, 8, 10위 감독은 브라운팀, 3, 6, 7, 9위 감독은 코니팀 코치를 맡는다.

이번 드래프트는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20명의 올스타를 선발하고 감독 추천 선수로 DB 김보배, 소노 네이팅 나이트, SK 자밀 워니, 현대 모비스 함지훈 4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해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팀 브라운의 베스트 5는 유기상(LG), 이선 알바노(DB), 안영준(SK), 하윤기(KT), 나이트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팀 코니의 베스트5는 이정현(소노), 박지훈(정관장), 칼 타마요(LG), 함지훈, 워니가 선발됐다.

/연합뉴스



‘신 포켓볼 여왕’ 전남 서서아, 세계선수권 제패

김가영 이어 13년 만

전남 당구 연맹의 서서아가 김가영에 이어 13년 만에 포켓볼 세계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다.

서서아(세계랭킹 6위)는 지난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린 2025 세계 여자 9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러시아의 크리스티나 트카흐(세계랭킹 3위)를 세트 점수 3-2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서서아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팽팽한 승부 끝에 지난해 세계 여자 10볼 선수권 결승에서 패배를 안겨준 트카흐를 상대로 설욕전에 성공, 2012년 김가영 이후 1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가 됐다.

1세트를 먼저 가져온 서서아는 이후 연달아 두 세트를 내주면서 역전은 허용했지만, 4세트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서서아는 마지막 5세트 승부치기 접전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서서아는 올해 국제대회 3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서서아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프레데터 PBC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10볼 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1월에는 스페인 발렌시아 간디아에서 진행된 ‘리틀몬스터 국제 여자 10볼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